

기독교가 한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초기 인적자본형성을 중심으로*

김 승 욱(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

논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으며, 기독교도 역시 양적인 면에서 많은 성장을 했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했음을 문헌조사를 통해서 보였다. 그리고 한국경제와 기독교의 성장을 개관한 후에, 한국경제성장의 요인에 대한 경제학계의 논쟁을 소개했다. 그리고 한국경제성장의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세 가지 중의 하나가 교육과 인적자본의 형성이라는 것을 지적한 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한국 경제성장의 초기조건인 높은 인적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한국경제성장의 초기 조건으로서 인적자본형성에 기독교가 사립학교의 설립을 통해서 크게 기여했음을 밝힘으로써 그 동안 부족했던 교회사와 경제학 분야의 학제간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제어 : 한국 경제성장, 한국 기독교의 성장, 기독교 교육, 교회사, 기독교학문

I. 서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2010년 7월 31일 접수 ; 9월 14일 수정 ; 9월 23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06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00년 전에 식민지로 전락해 독립한지 65년 밖에 안 되었고, 6.25전쟁으로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대부분 공업시설이 파괴되었으며, 군사 독재까지 겪었고, 국민 소득의 10% 정도를 국방비에 지출해야 하는 휴전상황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연일 혼란한 사회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에서 국가 건설에 성공한 나라는 4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이영훈, 2007 : 197). 지난 1993년에 세계은행(World Bank, 1993)은 한국을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남아시아 NIEs(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국가들과 함께 ‘고도성장 국가들(HPAEs : high performing Asia economies)’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1965년 이후 25년 동안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2배,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보다 3배,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보다 5배 성장을 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을 세계은행은 ‘기적(miracle)’이라고 묘사했다. 그 이유는 경제만 성장 한 것이 아니라 분배도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 한국은 정권이 두 차례에 걸쳐서 평화적으로 바뀌면서 민주화도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1997년의 아시아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기독교계도 한국의 경제성장과 교회의 성장, 그리고 세계 선교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발전 못지 않게 기독교의 발전도 놀라운 수준이었으며, 그 결과로 세계 선교에서도 큰 공헌을 했다. 특히 의사나 기업인 등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세계는 한국 교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 사회발전을 긍정하고, 기독교가 이에 어떻게 기여했는가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계에서는 오늘의 경제성장이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라는 설교는 많았지만, 이것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¹⁾ 지난 25년 동안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의 학회발표회를 통해 총 34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인문학 분야에서 104편, 사회과학분야에서 160편, 자연과학 분야에서 75편,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 경제와 경영 분야를 다룬 85편의 논문 중에 본 연구와 관련된

1)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2010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사회발전에 교회가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논문은 당시 발표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주제로 쓰인 논문은 거의 없었다.²⁾

그리고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2005)에서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3년 동안 연구하여 3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발전’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와 달리, ‘변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정치변동, 사회변동, 문화변동의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화기와 일제 식민통치기에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서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그 중에 경제와 관련된 논문은 제2부 ‘사회변동’에 있는 김재성(2005)의 “도시산업선교가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과 이동희(2005)의 “기독교 정신과 한국의 산업화” 두 편 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을 다룬 유일한 논문인 이동희(2005)의 연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가 한국의 산업화에 미친 영향이고, 둘째는 기독교가 산업화로 인해서 받은 영향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기하에 기독교가 벌인 물산장려운동과 기독교 자본의 성격에 대해 약간 언급하는데 불과하고,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반면에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받은 기복신앙의 비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³⁾

2) 이는 ‘기독교학문학회’에서 발표된 것만 확인한 것이다.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대부분 『신앙과 학문』이나 『통합연구』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두 학술지까지 계산하면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제외했다. 물론 학회에서 발표되지 않고 학술지에 바로 실린 것도 있지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홈페이지(worldview.or.kr)에는 두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실려 있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09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기준으로 인문학(104편)의 경우 신학/철학/세계관 : 69편, 심리학 : 4편, 역사학 : 8편, 문학 : 9편, 문화 : 14편이다. 사회과학(160편)의 경우 경제/경영 : 85편, 정치/행정 : 24편, 교육 : 38편, 법학 : 5편, 사회복지 : 8편이었다. 자연과학(75) 분야의 경우 이과(과학/수학) : 30편, 공학(컴퓨터/환경) : 28편, 간호학/의학/약학 : 17편이었다. 예술(4) 분야가 가장 취약했는데, 음악 : 2편, 미술 : 2편에 불과했다.

3) 이동희(2005 : 550)는 일제하 심령대부흥운동은 “신앙의 순수성과 경건성이라고 하는 영적 열광주의의 모습”을 띠었으며, “산업화 시기의 심령운동은 “기복” 또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경제적 성취 또는 사회적 성취라고 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도 기복적인 열광주의의 모습을 띠

이렇게 한신대학교(2005)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기독교학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또한 비기독교인들은 경제성장을 하나님의 간섭과 연관시키는 것을 종교적 열정으로 판단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교회에 대한 비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⁴⁾ 교회와 목회자의 비리가 세간의 비난거리가 되었고, 인터넷 상에 안티 기독교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를 밝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고 종교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제 II절에서는 한국경제성장과 기독교의 성장을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를 한다. 제 III절에서는 한국경제성장 원인에 대한 경제학계의 연구 성과와 논쟁을 정리하고, 한국경제성장의 원인을 3가지로 요약했다. 그리고 제 IV절에서는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교육과 초기 인적자본 형성에 한국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V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한국 경제와 기독교의 성장

1.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

송건호 (2007) 등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를 ‘식민지 수

고 전개되었다(548).”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생존동기가 합리화되고 이로 인해 물질축복과 현세복락을 강조하는 기복주의적 신앙부흥운동이 물량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4) 예를 들면 MBC는 『뉴스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1월 26일, 2월 2일, 16일 등 3회의 방송을 통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 한국교회 시리즈를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부성직자들의 호화 생활 및 교회의 면세정책에 대한 이슈에 집중하며, 특히 한국교회의 부패상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일부 성직자들과 특정 대형교회에 국한된 문제점을 개신교 전체의 문제점인양 일반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탈론'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은 일제 청산을 못해 정통성이 없으며, 독재에 아부하며 독점 재벌이 사회를 지배하고, 곳곳에서 기회주의가 승리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으로도 물질주의가 지배하며, 부정의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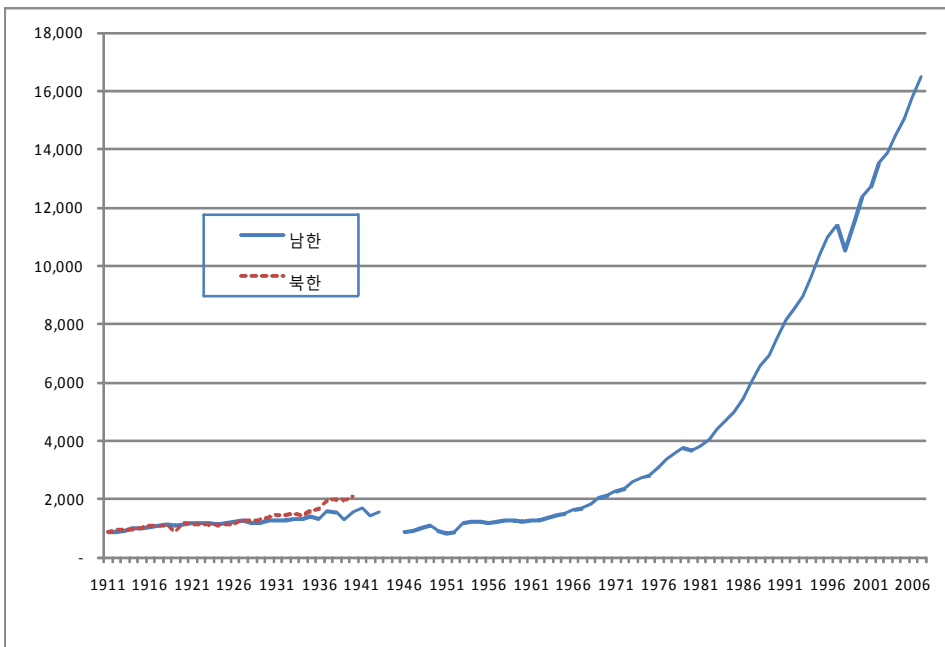
반면에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2006)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수용하고, 해방 이후 65년간 이룩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에 의하면 식민지 시대는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 등으로 일본의 민법이 이식되어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고, 계약자유 원칙이 세워졌으며, 조선과 일본이 단일 시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원리의 새로운 문명이 이식되어 전통과 충돌하고 접합하면서 나름의 형태로 정착되는 과정(이영훈, 2007 : 95)"으로 근대적 성장의 기초를 놓은 시기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자들은 오늘날 우리는 식민지, 내전,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건국과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해, 지난 반 세기동안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⁶⁾

어느 주장이 더 옳은가? 의식 수준 등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견해들이 있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낙년(2010 : 72)의 연구에 의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1-2007년까지

5) 『해방전후사의 인식』에서는 모택동의 신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건국사 비판으로 시작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대어 민족통일을 전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특히 5권의 총론을 쓴 김남식은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6) 이영훈(2007)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기초한 민족주의에 대해, 양반과 천민이 공존했던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비로소 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민족'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를 강조했다. 또한 민족주의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인종청소라는 비 인륜적인 범죄인 '부족주의'와 같은 개념이고, 민족이라는 미명하에 히틀러 등 많은 악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족'은 자유, 평등, 박애 등과 같은 이념에 비해서 초국가적인 가치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에 국가라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며,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였음을 주장했다.

약 100년간 남한의 GDP는 82.6배, 인구는 4.4배 증가해서, 이 100년 동안 연평균적으로 GDP는 4.7%, 그리고 인구는 1.4%의 성장을 보였다. 그 결과 1인당 GDP는 18.9배가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3.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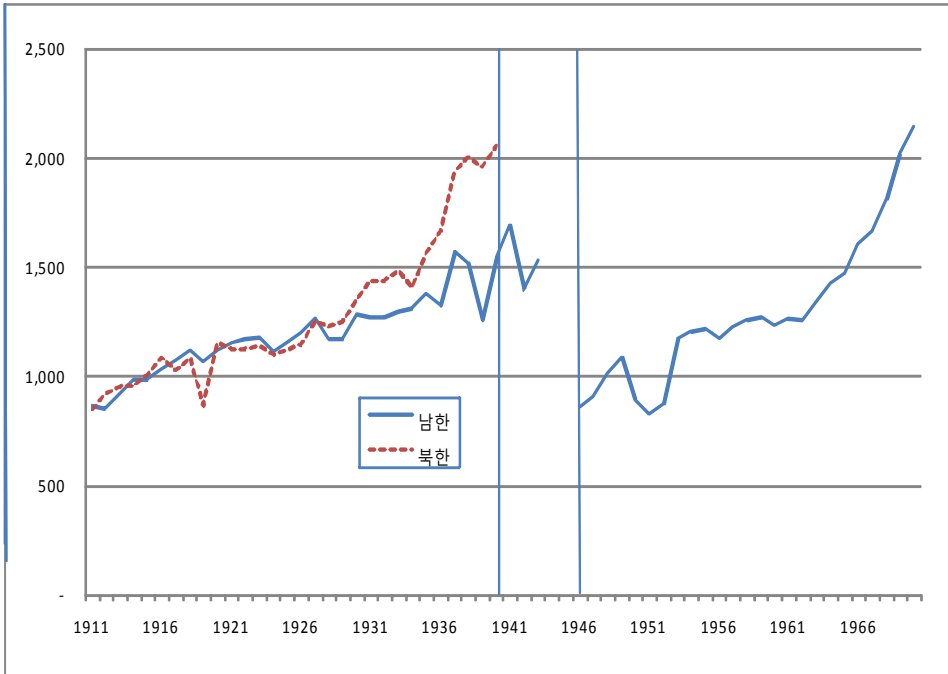
<그림 1> 일인당 GDP의 추이 (1911-2007)

(단위 : 천 원, 2000년 불변가격)

출처 : 김낙년 (2010)

한국경제는 지난 100년 동안 성장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란과 쇠퇴기가 있었다. <그림 1>에서는 이를 보기 어려우므로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를 확대한 <그림 2>를 보면, 먼저 중일전쟁으로 전시통제기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1911-1940)는 경제가 계속 성장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는 개선되어, 남한의 경우 1인당 GDP가 1.8배, 북한은

2.4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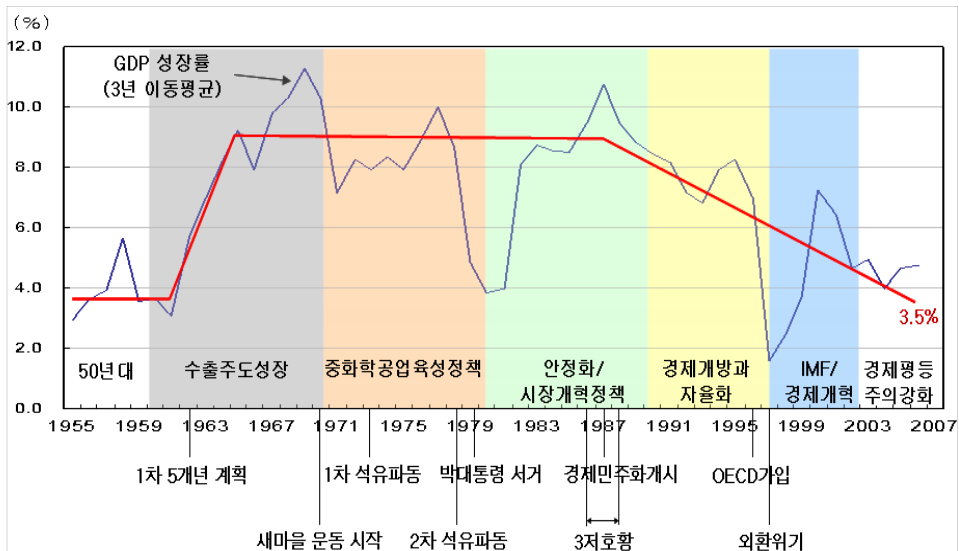


<그림 2> 일인당 GDP의 추이 (1911-1970)

(단위 : 천 원, 2000년 불변가격)

출처 : 김낙년 (2010)

그러나 전시 통제기(1941-1945)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어 1946년에 이르러서는 1941년의 거의 절반수준, 즉 1911년 수준으로 경제가 추락했다. 태평양 전쟁 기간인 1944-45년 기간 중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다. 해방 이후에는 6.25 전쟁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었으나 평균적으로 보아 정체되거나 완만하게 상승했으며, 1960년 이후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여 2007년까지는 앞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GDP는 13.4배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은 5.7%였다(김낙년, 2010).



<그림 3> 한국경제성장 추세선

출처 : 좌승희(2008 : 203)

고도 성장기의 경제성장을 <그림 3>을 통해 살펴보면 1960년대 수출주도로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연평균 8%가 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며, 1980년대에는 안정화정책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고, 1980년대 후반에는 민주화, 그리고 1990년대 초에는 경제개방과 자율화 과정을 지내왔다.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서 1990년대 말에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서 부실기업들이 정리되고, 부채의존형 경제체제가 개선되고,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다시 10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최근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한국은 2010년 현재 GDP 면에서 세계 14위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GDP의 양은 아프리카 대륙의 8억 인구가 생

산하는 양보다 많다. 한국의 수출은 세계 9위 수준이고, 무역규모는 아프리카 전체보다 많고, 중남미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박종철 외(2007)의 분석에 따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국력지수⁷⁾는 2010년의 경우 1.86으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 11위였다. 2020년이 되면 한국 국력지수는 2.22로 브라질(2.11)·러시아(1.9)·이탈리아(1.81)를 웃돌며 영국 다음으로 강해져 8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 주요 국가의 국력지수 변화 전망 (2010-2020)

2010년		순위	2020년	
미국	23.07	1	미국	21.35
중국	11.75	2	중국	13.48
인도	7.06	3	인도	7.55
일본	6.11	4	일본	5.33
독일	4.19	5	독일	4.17
프랑스	3.23	6	프랑스	2.99
영국	2.79	7	영국	2.69
브라질	2.17	8	한국	2.22
이탈리아	2.16	9	브라질	2.11
러시아	2.11	10	러시아	1.9
한국	1.86	11	이탈리아	1.81

출처 : 박종철 외 (2007 : 56).

또한 한국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은 1987년에 한국수출입은행에 3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만들었으며,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면서 원조공여국이 되었다. 2005년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지출이 7

7) 국력지수란 국내총생산(GDP), 인구, 재래식 군사력, 핵 군사력 등을 국가별로 조사한 뒤, 전 세계 국력을 100으로 놓고,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억5,200만 달러로 처음으로 국민총소득(GNI)의 0.1%를 넘어 ‘신흥원조국(emerging donor)’의 지위를 얻었고, 2008년에는 OECD 회원국 중에 19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받은 원조 액수는 127억 달러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 달러(70조원) 정도 되는데,⁸⁾ 우리가 공여한 국제원조의 규모는 2009년 말 현재까지 48억 달러로 아직 규모면에서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이제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식 멤버로 가입하여, ‘원조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여 골드만삭스는 지난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Kwon, 2009)에서 한국이 통일된다면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고급 인력과 광물 자원이 결합하면, 2050년경에는 일본과 독일을 능가하는 경제규모를 가질 것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지역은 9만6천 달러, 북한 지역은 7만 달러, 평균 8만8천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이 자랑하는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 면으로 볼 때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학생 비율은 1위, 젊은이 가운데 대학 졸업자 비율은 40%로 세계 3위이다. 미국 유학생의 숫자는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아직 모든 국제기관들이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OECD, FSB,⁹⁾ IMF, FTSE¹⁰⁾ 등의 기준에서는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MSCI,¹¹⁾ WGBI¹²⁾ 등에서는 아직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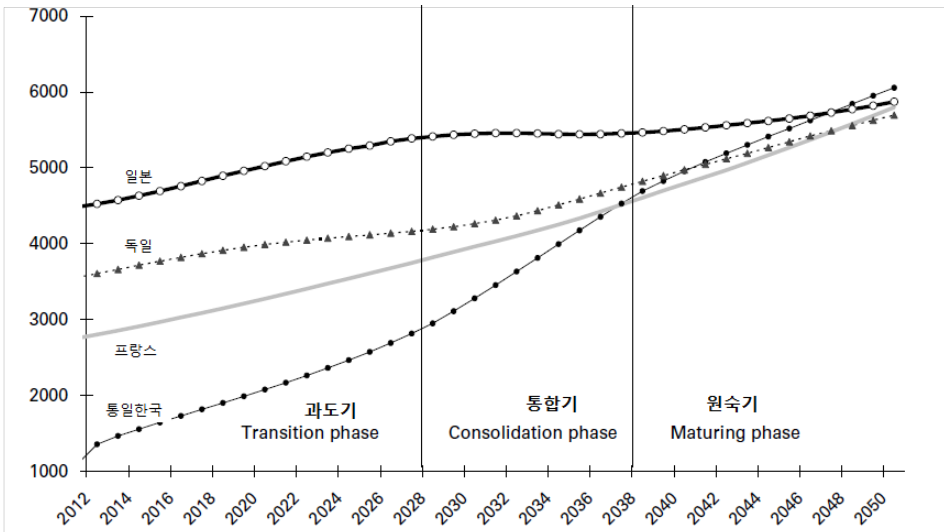
8) 한국은 미국·일본(청구권 자금)으로부터 유·무상 합해 각각 55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받았고, 한국 민간구호계획(CRIK), 유엔한국재건단(UNKRA) 등 유엔기구들로부터도 총 1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지난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수원국의 지위를 졸업했다.

9) 금융안정위원회(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1998에 세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이 2009년에 확대·개편된 것으로 현재 2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에 회원국이 되었다.

10) FTSE(Financial Times Security Exchange)는 영국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FTSE그룹이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서, 모건스탠리 MSCI 지수와 함께 세계 2대 지수로 평가받고 있다.

11)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지수는 모건 스탠리가 평가하는 지수로, 한국은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기 중이다.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은 약 2만 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48위에 불과하므로, 1인당 소득 기준으로는 아직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행복지수, 주관적 만족도 등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만족도가 높지 않다. 레이어드(Layard, 2005)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54개국 가운데 23위에 그쳤다. 그리고 영국의 신경경제재단(NEF, 2009)의 연구도 한국은 44.5점으로 68위에 불과했다(김승욱, 2009).



<그림 4> 30-40년 후 한국 GDP 전망

(단위 : 10억 달러, 2007년 기준)

출처 : Kwon (2009 : 16).

지난 20세기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일본과 아일랜드 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개발도상국의 수준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

12)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Salomon Smith Barney사가 평가하는 세계 국채 지수이다.

의 위상은 아직 선진국으로 완전히 인정받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개발도상국 중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본다.

2.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평가

한국경제 압축 성장 시기에 한국기독교도 함께 급성장 했다. 종교별 인구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표 2> “한국의 종파별 인구 구성”에서 보듯이 1985년도에 기독교 인구는 648만9천명으로 총인구의 16.1%를 차지했다. 그런데 1995년에는 이 비중이 19.7%인 876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성장하던 기간에 기독교인의 수도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¹³⁾

그런데 경제계에서 재벌이 등장하듯이, 기독교 교계에는 대형교회가 등장했다. 한 창업가가 기업을 재벌로 키우는 모습과 한 젊은 목사가 개척교회를 대형 교회로 키워 가는 모습이 유사했다. 강력한 리더십, 밤낮을 안 가리고 뛰는 초인적 정력 등이 공통점으로 거론되었고, 나아가 상속까지 이루어져, 교회가 사회와 구별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반대로 자본주의 세계관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김승욱, 2000 ; 신광은, 2009).

13) 한국의 교회수는 2004년 현재 전화번호부 기준 5만 3천개였으며, 2010년 현재 대략 6만개 정도로 예상된다.

<표 2> 한국의 종파별 인구 구성
(1985, 1995, 2005년)

(단위 : 천 명, %)

	1985		1995		2005		증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율
총인구	40,419	100	44,554	100	47,041	100	2,488	5.6
종교 있음	17,203	42.6	22,598	50.7	24,971	53.1	2,373	10.5
불교	8,059	19.9	10,321	23.2	10,726	22.8	405	3.9
개신교	6,489	16.1	8,760	19.7	8,616	18.3	-144	-1.6
천주교	1,865	4.6	2,951	6.6	5,146	10.9	2,195	74.4
유교	483	1.2	211	0.5	105	0.2	-106	-50.4
원불교	92	0.2	87	0.2	130	0.3	43	49.6
기타	175	0.4	268	0.6	247	0.5	-21	-7.7
종교 없음	23,216	57.4	21,953	49.3	22,070	46.9	117	0.5

출처 : 통계청 (2005).

게다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독교인의 숫자는 2005년에는 861만6천여 명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14만 4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계에 충격을 주었다.¹⁴⁾ 2005년에 우리나라의 총 종교 인구는 2,497만여 명으로 1995년 2,259만 7천명에 비해 10.5%나 크게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5년에는 전체 인구의 50.7%였던 종교인구가 2005년에는 53.1%로 늘어 2.4%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총 종교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 종교 모두 신자수가 늘어났다. 천주교는 1995년 보다 무려 219만 5천명이 증가했고, 불교의 경우 40만 5천명, 원불교의 경우 4만 4천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모든 종파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14만 명이나 감소했다. 그 결과 기독교의 인구비

14) 2010년도 통계는 2010년 9월 27일 현재까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중은 18.3%로 하락한 반면에 천주교는 11.0%로 증가했다. 노방전도, 전도폭발 등 전도를 매우 강조하는 기독교는 정작 신자 수가 줄어들고, 비교적 전도활동에 소극적인 천주교의 신자 수는 늘었다.

<표 3> 청소년(10-19세) 개신교 인구

(단위 : 명, %)

년도	청소년 기독교 인구	청소년 총인구	비중
1985	1,589,648	21,003,277	7.6
1999	1,708,153	18,863,390	9.1
2005	1,335,277	16,379,689	8.2

출처 :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로 계산 함.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 선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교회에 버금갈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 인구의 비중(18.3%)은 미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가톨릭을 제외한 개신교 기독교인의 비중이 1990년에 60%에서 2008년에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0.9%에 달한다(Kosmin and Keysar 2009 : 3). 그런데 한국은 절정인 1995년에도 겨우 19.7%로 20%에도 못 미치며, 그나마 줄어드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특히 청년층과 청소년층에서 기독교인구의 비중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8.2%(2005년 기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장 피크였던 1999년의 9.1%에 비해서 불과 6년 만에 거의 1%가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

또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헌신된 선교사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도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독교

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밝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다루려면 먼저 경제학계의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한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원인에 기독교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

1.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한 주요 연구

한국의 경제성장 원인에 대한 연구 중에 경제학계에서 인정되고 자주 인용되는 연구들을 정리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학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먼저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연구는 하버드 대학의 암스덴(Amsden, 1989)이다. 그녀는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한국에 방문하여 30여개 기업들과 면담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연구했는데, 한국의 공업화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원인으로 학습을 통한 공업화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Amsden, 1989 : 9-11). 그녀는 한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상대가격을 왜곡시켰으며, 재벌을 육성했고, 기업을 규율했고,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후 1991년에 세계은행과 IMF 합동 연차총회는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도록 했는데, 한국의 사례는 김정렴과 암스덴 교수가 맡았다.¹⁵⁾ 고도성장기 경제성장모형을 박정희-김정렴(청와대)-오원철(상공부)의 3두체제로 설명할 정도로 박정희 정부에서 9년 이상을 권력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김정렴(1990)도 역시 한국의 경제성장을 국가주도적 성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오원

15) 그 연구 결과가 “동아시아의 교훈(Lessons from the East Asia : 「Policy-making on the Front Lines, Memoirs of a Korean Practioner」)이란 주제로 1993년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열렸다.

철(1995-96)은 철저하게 계획된 산업정책의 힘에 의해서 한국경제가 성장했으며, 자립발전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조순(1991 : 200-201)은 대만이나 인도의 경우 경제계획이 ‘지시적 계획(indicative plan)’이었는데 반해, 한국은 ‘실행계획’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 자본주의를 ‘권위주의적 자본주의(authoritarian capitalism)’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세계은행(World Bank, 1993 : 27-32)은 보고서 『동아시아 기적(East Asian Miracle)』에서 한국 등 8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 요인으로 고율의 저축과 민간투자, 인적자본의 적극적 육성, 경제기초변수의 건실한 유지, 효율적 산업정책 등 효율적 지원을 통한 수출주도적 전략, 사회간접자본의 개발, 외국기술의 적극 도입, 개발을 선도하는 금융기관의 육성 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요인은 정부의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시장개입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폴 크루그만(Krugman, 1994)의 견해도 국제적인 논란을 야기했다. 그는 아시아의 경제는 기술혁신을 통한 서구의 경제성장과 달리 자본이나 노동 등 생산요소를 양적으로 많이 투입해서 일어난 성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을 포함해서 4마리의 용이라고 불렀던 한국과 대만 등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아시아 경제가 성숙기에 들어서면 고도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아시아 성장 한계론’을 주장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1996년 이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확산되자 그의 주장이 더욱 지지를 얻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95년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크라우제(Lawrence Krause), 쿠르거(Arne Krueger), 아델만(Irma Adelman), 퍼킨스(Dwight Perkins) 등 세계적 석학들을 초대하여 한국의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했다. 여기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크루거와 퍼킨스가 발표를 했는데, 크루거(Krueger, 1995 : 49)는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교육적 성취와 노동력의 숙련도, 하부구조의 건설, 신속한 자본축적 등이 라고 정리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지향적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퍼킨스(Perkins, 1995 : 53)도 역시 한국 경제성장의 놀라운 성취는 높은

저축률과 인적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적 경제 정책으로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5명의 국내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경제 반세기 :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을 발표하여 한국 경제성장 연구의 중요한 공헌을 했다. 한국경제발전의 종합평가를 한 제1편에서 해방 이후 50년간의 한국경제를 격변기(1945-60), 고도성장기(1960-79), 안정적 성장기(1980-95)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한국경제발전의 특징을 첫째는 수출주도에 의한 공업화우선의 고성장전략, 둘째는 정부주도 방식의 경제운영, 셋째, 선성장·후분배 원칙의 성장전략, 넷째, 인적자원을 선용한 성장전략, 다섯째, 경제력집중을 수반한 고도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경제발전·후민주화의 사례 등으로 정리했다(차동세·김광석 편, 1995 : 91-112).

이 밖에 한국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송병락(1992 : 379-89)은 다음의 8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제도적 요인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했다는 점, 둘째는 정책적 요인으로 우수한 관료와 정부의 지도력으로 성공적인 정부 주도적 경제성장이 이루어 졌다는 점, 셋째는 성장의 엔진으로서 수출확대를 통해서 수출 주도적 공업화를 했다는 점, 넷째는 외자도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자본 형성을 급속히 할 수 있었다는 점, 다섯째는 높은 교육열로 인한 인적자본에 많은 투자가 있었다는 점, 여섯째는 기업의욕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많은 기업가들이 탄생했다는 점, 일곱 번째로는 선진기술의 응용, 마지막으로, 한국이 가진 유교문화, 지정학적 위치, 유리한 국제경제환경 등 환경적 요인을 꼽았다.

2. 정부의 역할과 경제성장

지금까지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한 주요한 연구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러한 주요 요인들 가운데 경제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인 요인도 있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요인도 있다. 가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한국 경제성장에

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고도성장기 한국적 경제성장모델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국가주도적 불균형 발전전략이라고 인식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암스덴(Amsden, 1989), 김정렴(1990), 오원철(1995-6), 조순(1991), 장하준(2004) 등은 정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김영명(1996 : 11)은 비슷한 동아시아 모델 중에도 한국의 정부개입이 가장 컸으며 따라서 가장 중상주의적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서 세계은행(World Bank, 1993)은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시장개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 극단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고, 시장기능을 잘 활용한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많다. 전용덕·김용영·정기화(1997 : 30-31)는 정부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깊숙이 개입하여 많은 비효율을 초래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성장에 끼친 순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도성장기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는 기업과 기업가활동이었고, 그 중에서도 대기업의 빠른 성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민경국(2005)은 박정희 시대의 정부주도형 모델이 번영을 가져 왔다는 주장은 착각이며, 반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부추겼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전용덕 외(1997 : 369)는 한국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중에서 자리(自利, self-interest)의 추구, 한국전쟁, 그리고 1960년대의 경제제일주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기화(1997)는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입의 방식이 비효율을 줄이도록 하는 독특한 방식이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또한 좌승희(2006)는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경제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즉 ‘정부에 의한 차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는 수출실적에 따라 청·백·황·적의 카드로 등급을 나누어 차등하여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무역업자 차등제도를 실시했다(장선훈, 2006 : 85-86). 뿐만 아니라 중화학 공업도 검증된 우량 대기업들만 참여시켰으며, 중소기업지원, 농촌지원, 심지어는 원호대상자 지원까지도 자립 의지가 있는 대상자만을 골라서 지원한다는 원칙을 지켰다(좌승희, 2006 : 269-82).

수출을 장려할 때도 철저하게 수출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만 지원을 하였다(안충영·김주훈 325-26). 이와 같이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3. 성장회계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이렇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이 가장 중요한지 밝히기 위한 실증 연구도 많이 있었다. 경제성장모형으로는 가장 고전적인 솔로우(Solow, 1956) 모형이 있고, 이를 발전시킨 데니슨(Denison, 1962, 1967, 1974)과 그릴리치(Z. Griliches, 1973)의 성장회계방식 모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모델을 한국의 경제성장에 적용한 연구로는 영(Young, 1995), 보스워스-콜린스-첸(Bosworth-Collins-Chen, 1995), 김광석(1998) 등의 연구가 있다. 영(Young, 1995)에 의하면 총요소 생산성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향상되어 오다가 1970년대 말에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후 다시 향상 추세로 반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보스워스-콜린스-첸(Bosworth-Collins-Chen, 1995)의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한데, 한국의 총 요소 생산성이 1960년대의 0.6%에서 1980년대 전반에는 2.5%로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는 1.9%로 꾸준히 향상되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광석(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실질국민소득은 1963-95년의 32년 동안 연평균 7.9% 성장했는데, 총경제성장률의 54.2%인 4.3%가 총 요소 투입 때문이며, 나머지 45.8%인 3.6%는 투입요소 당 산출량 증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입요소 중에 노동기여도(3.0%)가 자본기여도(1.3%)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의 경제성장은 값싸고 저렴한 노동력의 투입 증대에 크게 힘입어 이룩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분석대상 기간을 고도성장기(1963-1970년)와 안정성장기(1979-1995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노동의 기여도는 3.4%에서 2.6%로 낮아진 반면에 자본의 기여도는 1.0%에서 1.8%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기술수준의 기여도도 전기의 1.2%에서 후기에는 1.7%로 상승되었다. 이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고도 성장기에

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투입을 증가시킨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1980년대 이후 안정성장기로 넘어오면서 단순한 요소투입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기술진보 및 제도 개선 등 질적인 개선에 의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한국경제의 성장회계분석 결과

(단위 : %)

		고도성장기 1963-79	안정성장기 1979-95	전체 기간
성장률		8.3	7.5	7.9
총요소투입 증가		4.4	4.4	4.3
	노동	3.4	2.6	3.0
	자본	1.0	1.8	1.3
투입 요소 당 산출량증가율		3.9	3.1	3.6
	자원배분효과	0.5	0.4	0.5
	규모경제 이익	1.3	1.5	1.4
	기술진보 및 기타	1.2	1.7	1.5
	불규칙요인	0.9	-0.5	0.3

자료 : 김광석(1998 : 53).

4. 한국 경제성장의 3대 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 중에 대부분 인정되는 것은 첫째로 한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방세계에 속했던 서독, 대만, 한국이 동독, 중국, 북한보다 훨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사실

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런데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제3세계가 모두 빠른 경제 성장을 한 것은 아니다. 필리핀의 경우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했으나 경제성장에는 실패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을 보인 것은 수출주도형산업육성 전략(EOI :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¹⁶⁾

한국형 성장모델의 두 번째 특징은 재벌 주도적이었다는 것이다(정병휴·양영식, 1992 ; 안충영, 2000).¹⁷⁾ 한국 재벌의 특징은 기업 소유와 경영의 미 분리(김인영, 2005 : 161 ; 이홍규, 1999 : 64), 또는 족벌이 지배하는 다각화된 기업집단(조동성, 1997 : 4 ; 강명현, 1996 : 27) 등으로 정의된다. 물론 재벌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지만(이대근, 2004 : 114-15 ; 홍훈, 2005 : 46-47) 재벌은 미발달된 시장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내부시장 등을 활용했다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많다(김인영, 2005 : 159 ; 이종윤, 1987). 장하준·정승일(2005 : 89)은 당시 한국의 시장 상황 하에서 재벌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정책이 불가피했고,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경제력 집중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여 재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도 한다(이성순·유승민, 1995 : 154). 정부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내수시장은 보호했지만 재벌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선진국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했으며, 국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았다고 하여 정경유착에 대한 반론도 있다(김인영, 2005 : 169). 재벌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재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세 번째 한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우수한 인적자본의 역할이다. 즉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과 높은 교육수준이 한국의 경제성장의

16)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수입대체공업화가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 수출대체가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다(이상철, 2005 : 401).

17) 안충영(2000)은 정부 주도적 동아시아 개발 모형인 한국과 대만의 가장 큰 차이가 한국은 재벌주도적 모델이라는 것으로 파악했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로머(Romer, 1990)의 내생적 기술변화 모형을 한국의 경제성장에 적용시킨 이종원·유병규(1998)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는 물적 자본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인적자본이며, 인적 자본의 향상과 기술발전은 대외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표 5> 인적자본 축적 추이(전체 인구 중 비중)

(단위 : %)

	무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1960	1985	증가율	1960	1985	증가율	1960	1985	증가율
한국	56.9	15.4	-5.1	5.8	23.4	5.7	1.9	8.7	6.3
대만	47.0	18.9	-3.6	4.2	18.5	6.1	2.2	5.6	3.8
싱가포르	64.0	35.8	-2.3	7.6	8.3	0.4	0	2.9	-
홍콩	29.7	18.4	-1.9	9.8	21.4	3.2	2.5	4.3	2.2
필리핀	33.5	9.8	-4.8	4.5	8.7	2.7	4.0	11.6	4.4
태국	48.1	15.4	-4.5	1.6	3.2	2.8	0.6	5.0	8.9
인도네시아	75.5	32.7	-3.3	86.2	46.0	10.2	0.0	0.1	11.6
멕시코	46.0	21.4	-3.0	4.5	3.3	-1.2	1.4	4.3	4.7
브라질	49.2	28.6	-2.1	11.0	12.0	0.4	1.4	5.7	5.7
칠레	20.2	2.1	-8.6	1.5	2.8	2.5	0.8	4.1	6.8
가나	86.2	51.2	-2.1	0.3	2.5	8.9	0.6	0.6	0.0
케냐	77.3	38.8	-2.7	0.6	1.5	4.0	0.2	0.5	2.7

주 : 증가율은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임.

출처 : 이종원(2002 : 157-58).

5. 한국경제성장과 인적 자본의 중요성

이종원(2002 : 156)은 인적자본이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심화시키는 핵심적

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적자본은 물적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가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나면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인적자본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그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과,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 그리고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3개국, 그리고 가나와 케냐 등 아프리카 2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군별로 무교육의 비중을 보면 경제가 낙후된 아프리카 지역의 교육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1960-85년 기간 동안, 원래 무교육 비율이 매우 낮았던 칠레 제외하고는, 한국의 무교육 감소율이 연평균 -5.1%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종원, 2002 : 159).

<표 6> 기술발전 추이

(단위 : %)

	전체 인구			남성 인구			여성 인구		
	1960	1985	증가율	1960	1985	증가율	1960	1985	증가율
한국	9.1	27.4	4.5	13.0	32.0	3.7	5.8	23.0	5.7
대만	9.5	24.9	3.9	13.2	29.2	3.2	5.4	20.1	5.4
싱가포르	9.5	18.2	2.6	13.0	20.7	1.9	5.4	15.6	4.3
홍콩	16.8	29.7	2.3	22.8	33.8	1.6	10.9	25.5	3.5
필리핀	11.1	20.3	2.4	12.5	20.9	2.1	9.8	19.8	2.9
태국	9.8	16.7	2.0	12.2	18.2	2.0	7.4	15.2	3.0
인도네시아	3.0	11.6	6.0	4.5	11.4	4.0	1.4	11.7	9.0
브라질	7.9	12.3	2.0	8.8	12.6	1.0	7.0	11.9	2.0
칠레	17.3	22.9	1.0	18.0	23.2	1.0	16.7	22.5	1.0
멕시코	7.7	14.6	2.6	8.6	15.8	2.5	6.8	13.4	2.8
가나	1.9	8.2	6.0	3.1	10.9	5.2	0.8	5.6	8.1
케냐	3.1	8.6	4.0	4.6	12.2	4.0	1.6	5.2	5.0

주 : 기술발전의 대응 변수는 (총평균 교육년수 x log GDP)가 사용됨.

출처 : 이종원(2002 : 160)

그리고 공업화 초기인 1960년에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비중이 각각 4-9%와 2% 내외로써 다른 국가군들에 비해서 매우 높았다. 그리고 198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이 높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등교육의 비중이 1960년에서 1985년까지 연평균 5.7%의 비율로 증가하여 절대비중이 매우 낮은 인도네시아와 가나를 제외하고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인적자본이 비교대상국들보다 빠르게 축적되었다는 의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동 기간의 증가율이 원래부터 매우 낮았던 인도네시아와 태국 그리고 칠레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높았다. 이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한국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인적자본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는 한국에서 여성의 높은 교육 참여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이종원, 2002 : 156).

또한 이 연구에서 이종원(2002)은 기술발전의 대용변수로 (총 평균 교육 년수 $\times \log \text{ GDP}$)를 사용하여 국가군 별로 기술발전의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한국의 연평균 기술발전 증가율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로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7> 국별 성장요인 종합 비교

	1인당 성장률	물적 자본	노동 조건	인적 자본	기술 발전	정부기능			시민 자유도
						무역 자유화	투자	교육	
한국	6.9	5.6	1.8	6.3	4.5	0.23	29.0	4.0	4.0
대만	6.4	1.7	2.1	3.8	3.9	0.25	27.0	4.0	4.7
싱가포르	6.8	3.9	1.7	-	2.6	0.32	47.0	3.0	4.9
홍콩	6.5	-0.7	2.1	2.2	2.3	0.37	31.0	3.0	2.1
(위 평균)	(6.7)	(2.6)	(1.9)	(4.1)	(3.3)	(0.3)	(33.5)	(3.5)	(3.9)
필리핀	1.5	1.6	2.7	4.4	2.4	0.18	27.0	2.0	2.6
태국	4.5	2.9	2.6	8.9	2.0	0.18	25.0	4.0	3.2
인도네시아	3.8	5.2	2.2	11.6	6.0	0.12	27.0	2.0	5.6
(위 평균)	(3.3)	(3.2)	(2.5)	(8.3)	(3.5)	(0.2)	(26.3)	(2.7)	(3.8)

	1인당 성장률	물적 자본	노동 조건	인적 자본	기술 발전	정부기능			시민 자유도
						무역 자유화	투자	교육	
브라질	2.8	-0.7	2.4	4.7	2.0	0.08	19.0	4.0	2.2
칠레	1.4	0.9	1.8	5.7	1.0	0.14	16.0	5.0	4.4
멕시코	2.4	0.1	2.6	6.8	2.6	0.18	24.0	3.0	3.8
(위 평균)	(2.2)	(0.2)	(2.3)	(5.7)	(1.9)	(0.1)	(19.7)	(4.0)	(3.5)
가나	0.06	-2.3	2.6	0.0	6.0	0.20	5.0	2.0	5.8
케냐	1.2	-2.5	3.7	2.7	4.0	0.17	25.0	6.0	5.6
(위 평균)	(0.6)	(-2.4)	(3.2)	(1.4)	(5.0)	(0.2)	(15.0)	(4.0)	(5.7)

출처 : 이종원 (2002 : 165)

이 연구에서 이종원(2002 : 166)은 <표 7>에 정리된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초기 조건 중에 보다 우수했던 것은 물적 자본 보다는 인적자본이었고, 인적자본의 축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다. 특히 여성 인력의 교육정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빠른 인적자본 축적의 덕분에 기술발전의 속도도 다른 국가군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¹⁸⁾

지금까지 한국경제성장의 원인으로 경제학계에서 수용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의 수용, 재벌 중심적 성장, 그리고 교육과 인적자본의 형성 등 3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고, 재벌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한 것은 정책적인 선택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과 인적자본 형성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독교가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성장이 시작된 1960년대 이전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던 1960년 이후에는 기독교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더 컸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과 인적자본의 형성, 그리고 그로 인한 기술의 발전에는 정

18) 이러한 인적자본 요소 이외에 무역자유화 지수는 낮은 편이지만 꾸준히 개선되었고, 정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요했으며, 시민의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 그 역할을 할 역량이 없었던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특히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초기조건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예를 들면, 초기 인적 자본과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는 아자리아디스와 드라젠(Azariadis and Drazen, 1990)에 의해서 연구된바 있다. 이들은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 30개 국가들의 인적자본의 초기 조건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1960년의 문자 해독률에 대한 GDP 비율과 1960-1985년간의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여 초기 인적자본의 상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장 높은 초기 인적자본 축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또한 로드릭(Rodrik, 1995)도 역시 한국의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진 이유를 1960년대 초의 소득수준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사회 개발지수가 다른 개도국보다 높았으며, 이것이 바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국에서 인적자본의 형성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1960년 이전의 한국에서의 인적자본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사립학교의 설립에 초기 기독교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한국 기독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을 밝히려고 한다.

IV. 초기 인적자본의 형성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공헌

1. 유교와 교육

한국이 경제성장의 초기 조건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무보다 문을 숭상하는 유교전통과 과거시험제도 등으로 인해서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막스 베버(Weber, 1990)는 유교나 도교를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꼽았으나, 일본에 뒤를 이어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유교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일어나면서,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또는 ‘유교 자본주의’(Confucian Capitalism)’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김승욱, 2006).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경제발전 단계에서도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출을 우선적으로 했다. 베로우와 리(Barro and Lee, 1996 : 218-33)의 연구에 의하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교육연수의 경우 OECD 가입국, 개도국, 그리고 동아시아 개도국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본 결과, 한

<표 8> 교육수준의 국가별 비교
(15세 이상 근로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 년)

국 가	연 도	교 육 수 준				평균교육기간
		무학(無學)	초등	중등	고등	
OECD가입국	1960	5.0	57.2	31.0	6.8	7.05
	1990	4.5	32.6	41.3	21.6	9.02
개도국	1960	64.0	28.9	6.2	0.8	2.05
	1990	39.8	34.5	20.8	4.8	4.43
인도네시아	1960	68.0	28.6	3.4	0.1	1.55
	1990	19.7	63.1	15.5	1.7	4.59
한국	1960	43.8	36.2	17.4	2.6	4.25
	1990	8.0	16.1	61.9	13.9	9.94
말레이시아	1960	49.7	38.6	10.1	1.5	2.28
	1990	19.4	45.4	31.8	3.3	6.04
필리핀	1960	25.6	53.6	14.5	6.3	4.24
	1990	7.7	46.9	25.3	20.1	6.93
싱가포르	1960	46.2	21.3	32.5	0.0	4.33
	1990	19.0	41.9	34.8	4.3	6.08
대만	1960	37.3	42.6	16.3	3.8	3.87
	1990	12.4	29.6	43.8	14.2	7.98
태국	1960	36.9	55.3	7.0	0.7	4.30
	1990	13.3	69.9	9.6	7.3	5.75

자료 : Barro and Lee (1996 : 218-33).

국,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우 1960년에는 OECD회원국의 평균 수치(7.05)의 절반에 그쳤다. 한국은 4.25년, 대만은 3.87년, 그리고 싱가포르는 4.33년이였다. 그러나 1990년에는 그 격차를 크게 줄였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1960의 4.25년에서 1990년에는 9.94년으로 OECD평균수준 9.02년을 크게 상회하였다. 같은 기간 대만과 말레이시아 역시 교육연수가 크게 신장되었다. 또한 15세 이상 근로인구에서 각 교육수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1960년대에는 동아시아의 개도국들도 다른 지역의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무학자의 비율이 OECD 가입국에

비해서 현저히 높지만, 1990년에 이르러서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동아시아 개도국의 무학자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 OECD 국가들에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등교육자와 고등교육자의 비율이 1990년에 아직 OECD국가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지역의 개도국에 비해서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교육수준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승옥, 2006).

2. 기독교와 근대적 교육의 시작

이렇게 한국에서 교육수준이 향상된 것은 유교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근대교육의 도입에는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의 근대 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885년에 배재학당을 열어 우리나라 신교육의 개척자적 역할을 한 북감리회의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목사,¹⁹⁾ 경신학교(1886년)의 전신인 언더우드 학당과 ‘연합기독교대학’(Union Christian College,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또한 연세대학교로 발전)을 설립한 북장로회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선교사,²⁰⁾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 전신, 1886년)을 설립한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 부인 스크랜턴(M.F. Scranton), 제중원 사택에 정동여학당이란 이름으로 정신 여학교를 설립한 미국 북장로교의 여의사이자 선교사인 엘레스(1887), 숭실학교를 설립(1897년)한 베어드(W. M. Baird) 선교사,²¹⁾ 숭덕학교를 설립(1898년)한 마포삼열(Samuel

19) 1985년에 입국한 북감리회의 아펜젤러(H. G. Appenzeller)목사는 1885년 8월 3일에 스크랜턴 의사로부터 빌린 집의 방 두 칸 벽을 헐어 교실을 만들어 근대학교를 처음 시작하였다. 이에 1886년 6월 8일에 고종은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교명과 액자를 내렸다.

20) 두 번째 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는 미국 북장로회 파송 선교사로 1885년 4월에 입국하여 3일 만에 알렌의사가 개설한 광혜원에서 교아원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공동 학습생활을 하게 하면서, ‘언더우드 학당이라는 교명을 붙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교아원이요, 학교로는 두 번째이다. 이 언더우드 학당이 종로구 혜화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경신학교(1886년)의 전신이다.

21) 베어드 선교사의 숭실대학교 설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2009) 참고.

Moffet) 선교사²²⁾ 등 한국의 근대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표 9> 부흥운동 기간 평양 지역 학교의 증가

	1902년	1905년	1907년
학 교 수	35	62	106
교 사	35	64	121
학 생	592	1,802	2,583
자립하는 학교 수	30	60	106

출처 : 박용규 (2007 : 471)

특히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미션 스쿨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양 대 부흥 기간 동안 학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부흥운동을 지나면서 불과 7년 만에 초등학교는 무려 10배가 증가했다(박용규, 2007 : 468).

박용규(2007 : 499-500)는 부흥운동 당시에 조선인들이 얼마나 배움에 굶주렸는가를 코리아 미션 필드(Korea Mission Field) 기고문 “배움에 대한 굶주림(Hungry to Learn)”을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신앙과 도덕 교육을 시켜 줄 것과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훈련된 교사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이 일과 관련하여 한 가지 고무적인 특징은 한국인 스스로 학교 운영비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금을 모금할 수 있든 없든 그들은 학교 설립을 원하고 있다. 지금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우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이다.

이러한 조선인 기독교인들의 갈망에 부응하기 위해 선교사들은 조선에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을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복음전파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민족복음화를 이루고, 성숙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06년 10월에는 1,500명이나 되는 북감리교회 소속 교사들이

22) 마포삼열 선교사의 사역과 유계준 장로의 사역에 대해서는 유정철(2009) 참고.

모임을 가지기도 했고, 1907년 1월 서울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교사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박용규, 2007 : 501).

이러한 선교사들의 도움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열정에 힘입어, 한일합방 직전인 1910년 2월까지 많은 학교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교단별로 보면, 장로교가 세운 학교가 501개,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가 158개, 성공회가 4개, 종파미상 84개, 각파 합동 1개, 천주교가 46교로서, 신구교회가 세운 학교 수가 무려 796개 교에 이른다. 이와 같이 개신교 특히 그 중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조선에서 사립학교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에 많은 독립 운동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신앙에 의지해서 독립을 추구했으며, 독립의 방법으로 교육을 강조했다. 3.1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기독교를 대표한 남강 이승훈(1864-1930)은 오산학교를 세웠다.²³⁾

홍사단을 창설한 도산 안창호(1878-1938)도 역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도 고향인 평안남도 상서군 송만리에 점진학교를 세웠으며, 후에 또 대성학교를 세워 새 교육에 힘썼다.²⁴⁾ 그는 또한 국권회복을 위해 1912년에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

23) 이승훈은 후에 장로가 되어 그의 나이 53세에 마포삼열이 창설한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자수성가한 실업가로서 신교육 열심가로 기록되어 있다. 남강 이승훈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만열(2007 : 54, 제Ⅱ장) 참고. 이 오산학교는 고당 조만식이 교장을 맡아, 주기철, 김동진, 한경직, 김홍일 등 한국의 지도자를 배출했다(이만열, 2007).

24) 안창호는 18세에 언더우드가 세운 구세학당에서 3년간 수학하고 이 학교의 조교가 되었는데, 이 무렵 입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에 그는 언더우드 등의 알선으로 190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엔젤레스에서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신학강습소에서 영어와 성경을 배웠다. 그리고 다시 1907년에 29세의 나이로 귀국하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독립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해서 이승훈, 전덕기, 김구 등과 활동했다. 그리고 대성학교를 세워 기독교 신앙을 지도했다. 그는 민족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 3.1운동이 발발하자 도산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모금한 6,000달러를 가지고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파역을 맡았고, 조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 주일 예배 참석하려고 노력했음을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던 1932년 4월 29일 체포되어 1935년까지 약 4년간 옥고를 치르고 1935년에 출옥했다. 그 후 고향에 가서 기양교회, 평양 남산현 교회 등에서 설교를 했다. 다시 1937년에 ‘동우회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병보석으로 나와서 1938년에 60세로 서거했다(이만열, 2007 : 140). 도산의 전기를 쓴 이광수는 도산의 믿음이 예수를 훌륭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의

고, 다음해에 부설 클레어몬트 학생양성소도 창립했으며, 1913년에는 기독교의 의식을 본받아서 흥사단을 창립했다.

백범 김구(1876-1949)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으며 학교를 세웠다. 그는 1903년 썸에 예수교로 입교한 이후 적극적으로 성경공부와 전도활동을 했다(이만열, 2007 : 112-13). 그리고 을사조약 철폐운동에 실패하자, 민족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사업에 전념하여, 1906년에 장연에 광진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학교를 세우는데 열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YMCA와 같은 기독교사회 단체를 세워서 이를 통해서도 국민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월남 이상재의 경우 YMCA에 교육부를 세워서 교육에 힘썼다. 1904년 당시 20만 서울 인구 중에 중등학교 교사가 8명, 그리고 학생이 30명밖에 없었는데, YMCA에서는 12명의 교사를 확보하여 청년들을 지도하였다. 2년제의 보통과와 일어 특별과, 3년제의 영어 특별과를 두어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교육과정을 두었으며, 실업교육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352명의 학생이 등록했다(김명구, 2003 : 171-73).

이러한 초기 선교사들과 조선 기독교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현재에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다. <표 10>은 OECD 국가들의 국·공립, 사립학교 비율 (2003)을 초,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중, 고등학교의 경우 월등하게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다. 2003년 기준으로 중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비중이 OECD 평균 11.4%인데 반해 한국은 20.6%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이 15.5%인데 반해 한국은 51.8%이다.²⁵⁾ 우리

믿음에 불과하다고 하지만(이만열, 2007 : 163), 이만열(2007, 136, 164)은 분명히 도산의 신앙을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신앙이었으며, 도산 안창호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라고 주장했다. 도산은 중요한 일을 당하면 기도를 올리고, 흥사단 문답도 기도로 했으며, 기도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전영택, 2000 ; 최기영, 1998)

25)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정부 의존형인 이유는 공립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세우는 대신 사립학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대신 사립학교들로부터 학생 및 교과목 선택권 등을 넘겨받았다. 그리하여 한국의 사립학교들은 소유권만 정부에 있지 않을 뿐 가르치는 내용은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되었다.

나라가 선진국들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이렇게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해 많은 사립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역군을 키우는데 기독교 학교들이 크게 기여했다. 그리하여 아자리아디스와 드라젠(Azariadis and Drazen, 1990)이 강조했던 바와 같이 한국은 고도성장을 하기 이전에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의 초기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로드릭(Rodrik, 199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초기 인적자본의 형성은 훗날 한국 경제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

<표 10> OECD 국가별 학생 등록 비율의 국제비교(2003)

(단위 : %)

구 분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정부의존	독립적		정부의존	독립적		정부의존	독립적
한 국	98.7	a	1.3	79.4	20.6	a	48.2	51.8	a
일 본	99.1	a	0.9	94.0	a	6.0	69.8	a	30.2
호 주	71.7	28.3	a	65.7	34.3	a	73.3	26.7	a
프랑스	85.4	14.3	0.2	78.8	21.0	0.2	69.5	29.7	0.8
독 일	97.3	2.7	x(2)	92.9	7.1	x(5)	92.5	7.5	x(8)
오스트리아	95.6	4.4	x(2)	92.3	7.7	x(5)	90.0	10.0	x(8)
벨기에	45.4	54.6	m	43.2	56.8	m	42.1	57.9	m
캐나다	m	m	m	m	m	m	m	m	m
체 코	98.9	1.1	a	98.2	1.8	a	87.4	12.6	a
핀란드	98.8	1.2	a	95.8	4.2	a	89.6	10.4	a
그리스	92.4	a	7.6	94.5	a	5.5	93.7	a	6.3
이탈리아	93.2	a	6.8	96.6	a	3.4	93.9	0.7	5.4
룩셈부르크	93.2	0.7	6.1	79.3	13.1	7.6	84.1	8.2	7.7
포르투갈	89.5	a	10.5	88.7	a	11.3	81.8	a	18.2
스위스	96.3	1.3	2.4	93.0	2.5	4.5	93.1	3.2	3.7
터 키	98.5	a	1.5	a	a	a	98.3	a	1.7
영 국	95.1	a	4.9	93.2	0.4	6.4	26.9	70.4	2.7
미 국	89.2	a	10.8	90.8	a	9.2	90.9	a	9.1
국가평균	89.5	8.2	2.4	85.9	11.4	2.7	7.9	15.5	4.6

주 1.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하여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n은 크기가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자료가 수집되지 아니함. x(2)의 의미는 자료가 2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주 2. 정부독립형, 혹은 의존형의 여부는 재정적 독립 상태에 따라 나누어짐. OECD에서는 학교 예산의 50%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정부 의존형 사립으로 규정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06)

V. 결론

지금까지 한국 경제성장과 기독교의 성장을 개관하고, 한국경제성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경제학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시장경제제도, 대기업의 역할, 그리고 인적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경제학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특히 한국이 급속한

압축성장을 시작하기 이전의 초기조건으로써 교육이 매우 큰 역할을 했으며, 또한 이에 한국 기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 학계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하여 거의 연구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보였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교회사 분야에서 개항기 및 일제 강점기의 한국 기독교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사와 경제성장을 연관시키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한국 교회사를 연결시켜서 이 양자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한국의 기독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은 선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에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기독교 학계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 기업인들의 기여한 바를 찾아서 사례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으로 경제 전체를 다루었으나,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개별 기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거시적으로도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있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박정희 정부에서도 역시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이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간증적인 회고록 등이 발표된다면 한국 교회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유교가 저축을 강조해서 동아시아의 유교국가들의 자본축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 연구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도 역시 막스 베버(Weber, 1904-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를 제공했다면, 한국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검, 절약의 정신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하는 것도 실증적으로 분석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으므로 다음 과제로 넘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연구의 의의는 교회사와 교육학, 그리고 경제학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학 및 기독교 철학자들과 여타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학제간 연구가 많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도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했으면 더 좋은 연구 성과가 나왔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학제간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이근달 옮김. (1990). 『아시아의 다음 거인』. 서울 : 시사영어사.
- Azariadis and Drazen (1990). “Threshold External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2). 501-26.
- Barro, R and Jong Wha Lee (1996). “International Measures of Schooling Years and Schooling 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May 1996. 86(2). 218-23.
- Barro, Robert J.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2). 407-43.
- Bosworth, Barry, Susan M. Collins, and Yu-chin Chen (1995). “Accounting for Differences in Economic Growth.” *Brookings Discussion Papers in International Economics*. No. 115.
- Denison, E. F. (1962). “Sources of Growth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lternative Before Us.” *Supplement Paper*. 13. N.Y. :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 Denison, E. F. (1967). *Why Growth Rates Differ : Post war Experience in Nine Western Countries*. The Brookings Institution.

- Denison, E. F. (1974). Accounting for United states Economics Growth. 1929-1969.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 Griliches, Zvi (1973). "Research Expenditures and Growth Accounting." in B. R. Williams(ed.). Science and Technology in Economic Growth. New York : Macmillan.
- Kosmin, Barry A. and Ariela Keysar (2009). American Religious Identification Survey (ARIS) 2008 Summary Report. Trinity College.
- Krueger, Anne (1995). "Evaluation of Korean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in The Korean Economy 1945-95 : Performance and Vision for the 21st. Centur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Fiftieth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 Dec. 8-9. 1995.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rugman, Paul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 A Cautionary Fable." Foreign Affairs. 73(6). 62-78.
- Kurzweil, Ray (2005). The Singularity is Near. 김영남 · 장시형 역(2007).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 Kwon, Gooheon (2009).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Goldman Sachs.
- Layard, Richard Grenville (2005). Happiness :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 NEF (2009). The Happy Planet Index 2.0. London : New Economics Foundation.
- Perkins, Dwight (1995).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 Korea, 1945-1995." in The Korean Economy 1945-95 : Performance and Vision for the 21st Centur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Fiftieth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 Dec. 8-9. 1995.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Rodrik, Dani (1995). Growth Policy : Getting Interventions Right : How South Korea and Taiwan Grew Rich Economic Policy. April, 1995. 55-107.
- Romer, Paul M. (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part II. October 1990. 71-102.
- Solow, Robert M.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s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 65-94.
- Weber, Max (1905).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김덕영 역 (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 도서출판 길.
- Weber, Max (1915). Konfuzianismus und Taoismus. 『유교와 도교』. 이상률 역 (1990). 문예출판사.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 Young, Alwyn (1995). "The Tyranny of Numbers :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 Economics. 110(3). August 1995. 641-80.
- 강명현 (1996). 『재벌과 한국경제』. 서울 : 나남.
- 김광석 (1998). 『우리경제의 성장원과 성장잠재력 전망』. 서울 : 세계경제연구원.
- 김낙년 (2010). “식민지 조선 경제의 제도적 유산.” 『식민주의와 식민책임』. 제53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 논문. 71-85.
- 김명구 (2003). 『월남 이상재의 기독교 사회운동과 사상』. 서울 : 도서출판 시민문화.
- 김승욱 외 3인 (2002). 『시장인가 정부인가』. 서울 : 부키.
- 김승욱 (2000). “교회 안에 들어온 자본주의 세계관.” 『목회와 신학』. 2000년 10월 호 특집.
- 김승욱(2006). “유교자본주의와 경제성장.” 『경제논집』. 서울 : 중앙대학교.
- 김승욱(2009). “한국에서의 재물관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앙과 학문』. 14(3). 41-93.
- 김영명 (1996).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재검토 : 한국과 일본』. 한림과학원총서. 40. 서울 : 소화.
- 김인영 (2005). “재벌과 한국 사회의 변화.” 전상인 외 (2005). 『한국현대사 : 진실과 해석』. 서울 : 나남출판. 157-75.
- 김재성 (2005). “도시산업선교가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편 (2005).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493-534.
- 김정렴 (1990). 『韓國經濟政策 30년사-김정렴회고록』. 서울 : 중앙일보사.
- 김정렴 (1993). Lessons from East Asia. Policies on the Frontier Lines. World Bank.
- 민경국 (2005). 『진화론적 자유주의 사회철학』. 서울 : 자유기업원.
- 박용규 (2007). 『평양 대 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개정판. 서울 : 생명의 말씀사.
- 박종철 · 이상현 · 박영준 · 백승주 외 (2007). 『2020 선진한국의 국가전략 (I) : 안보 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2006).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서울 : 책세상.
- 송건호 외(2007).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 한길사.
- 송병락(1992). 『한국경제론』 제3판. 서울 : 박영사.
- 신광은 (2009). 『메가처치 논박』. 서울 : 정연.
- 안충영 (2000). 『21세기 동아시아의 경제발전모델』. 서울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 연구센터.
- 안충영·김주훈 (1995). “대외지향 무역정책과 산업발전.” 차동세 · 김광석 편 (1995). 『한국경제 반세기 :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312-69.
- 오원철 (1995-96). 『한국형 경제건설 : 엔지니어링 어프로치(1-5권)』. 서울 : 기아경제연구소.
- 유정철 (2009). “유계준 장로의 순교와 하나님의 축복.” 제14회 기념강좌 및 주기철

- 목사 순교 65주기 추모예배 자료집. 서울 : 주기철목사 기념사업회.
- 이광수 (2000). 『도산 안창호』. 『도산 안창호 전집』. 12권. 서울 : 도산안창호선생전집위원회. 384-85.
- 이대근 (2004). “경제성장과 산업화.” 교과서포럼 편. 『한국 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판한다』. 서울 : 두레시대. 제3주제. 97-138.
- 이동희 (2005). “기독교 정신과 한국의 산업화.”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편.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535-57.
- 이만열 (2007).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서울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상철 (2005).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으로서의 전환과 성과.” 이대근 외 (2005).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 조선후기에서 20세기 고도성장까지』. 제12장. 서울 : 나남출판. 377-401.
- 이성순·유승민 (1995). “산업조직의 전개와 정책대응.” 차동세·김광석 편 (1995). 『한국경제 반세기 :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370-474.
- 이영훈 (2007). 『대한민국 이야기 :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강의』. 서울 : 기파랑.
- 이종원 (2002). 『한국경제론』. 서울 : 울곡.
- 이종원·유병규 (1998).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미래』. 서울 : 해남출판사.
- 이종윤 (1987). “기업집단의 형성 메커니즘과 평가.”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이흥규 (1999).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 : 기업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 서울 : 산업연구원.
- 장선훈 (2006). 『고도성장기 한국 수출증대 요인에 대한 연구 : 수출진흥확대회의와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하준 (2004). 『개혁의 덧』. 서울 : 부키.
- 장하준·정승일 (2005). 『왜도난나 한국경제』. 이종태 엮음. 서울 : 부키.
- 전영택 (2000). “안도산 선생.” 『크리스천』 1961. 3. 11일자. 『도산 안창호 전집』. 제13권. 서울 : 도산안창호선생전집위원회. 431-32.
- 전용덕·김용영·정기화 (1997).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서울 : 자유기업센터.
- 정기화 (1997). “금융제도의 변화와 경제성장.” 전용덕·김용영·정기화 (1997).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제5장. 서울 : 자유기업센터.
- 정병휴·양영식 (1992). 『한국 재벌부문의 경제 분석』.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조동성 (1997). 『한국재벌』.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 조순 (1991). “압축성장의 시발과 개발전략의 정착 : 1960년대.” 구본호·이규억 편 (1991).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69-206.
- 좌승희 (2006). 『신 국부론 : 차별화와 발전의 경제학』. 서울 : 굿인포메이션.
- 좌승희 (2008).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서울 : 지평.
- 차동세·김광석 편 (1995). 『한국경제 반세기 :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최기영 (1998). “도산 안창호의 기독교 신앙.” 『도산사상연구』, 제5집. 서울 : 도산사상연구회.

통계청 (2005). 『인구 센서스』. 대전 : 통계청.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2009). 『베어드와 한국선교』. 서울 : 숭실대학교 출판부.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편 (2005).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홍훈 (2005). “경제인식과 국가경쟁력.” 이근 외 (2005). 『한국 경제의 인프라와 산업별 경쟁력』. 5장. 서울 : 나남출판. 33-55.

Abstract

The Impact of the Christianity on the Economic Growth of South Korea

Seung-Wook Kim(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virify the impact of the Christianity on the Korean economic growth. During last half century, the Korean economy experienced the amazing growth and Korean church also have grown rapidly. But the impact of the Christianity on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was under estimated. In this research, the recent researches in this field and the outline of economic growth in Korean economy and Christianity was shown. The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Korean economic growth was the initial stage with high level of human capital. The Christianity had great impacts on the accumulation of the human capital in Korea by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 this article, the various argument on the causes of the Korean economic growth was evaluated and it was stressed how the early missionaries and churches contributed o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t wa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the church history and economics.

Key Words : Korea economic growth, the growth of Korean church, Christian education, church history, Christian study